

2019년 2학기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래!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경감!
정부·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추진 목적

-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시행 방안

-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

대상 학교

-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제외 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지원항목

-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2019년 2학기 >

2020년 >

2021년~ >

적용 학년

3학년

2·3학년

췌학년

대상 인원 (예상)

49만명

88만명

12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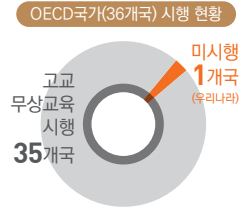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Q&A



Q 고교 무상교육, 왜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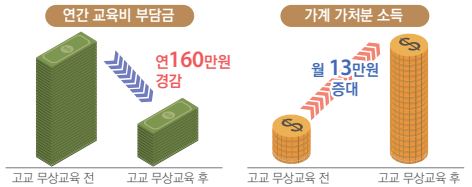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단계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교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서민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Q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나요?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그간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의 서민가구들입니다.

이미 저소득층에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1만5000여명(2017년)이나 됩니다.

Q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고, 현재의 자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